

전남도청 체조 김대은·김승일 몸값 1억4천만원 '역대 최고'

양태영·유원철·김지훈 등
체조선수 역대 몸값 총 5명



김대은 김승일

2006 도하아시아게임 남자 기체체조대표팀의 주축을 이뤘던 대학 졸업반 4인방이 모두 역대 몸값을 받고 실업팀 유니폼을 입는다.

체조팀을 운영 중인 전남도는 24일 "김대은(한체대), 김승일(한양대)과 각각 계약금 8천만원, 연봉 6천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씩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조 선수 몸값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해 10월 세계기체체조선수권대회 평행봉 부문에서 공동 은메달을 따낸 유원철(한체대)이 1억2천만원을 받고 포스코건설에 입단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몸값 1억원을 넘긴 선수가 된 데 이어 3개월만에 최고 몸값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철봉의 1인자 김지훈(한체대)도 서울시청

과 총액 1억원에 계약하는 등 한국 체조의 기동으로 불리는 동기 4인방이 모두 역대 몸값을 받으면서 남자 체조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2004 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 동메달리스트인 양태영(포스코건설)이 그해 몸값 1억원 시대를 처음으로 개척한 이후 3년 만에 1억원 이상을 받는 선수는 5명으로 늘었다.

현재 6명으로 구성된 대표팀 1진 가운데 역대 몸값이 아닌 선수는 한체대에 다니고 있는 김수현 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대은과 김승일은 자체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똑같은 3천만원 대의 급여를 받는데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 연봉을 6천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2004 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에서 은메달을 딴 김대은은 모든 종목에서 만능 선수로 통한다.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마루운동과 평행봉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낸 김승일도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다.

대한체조협회 소정호 사무차장은 "이제 체조 선수들도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협회는 이미 2008 베이징을 앞둔 시점에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선수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실업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선수들이 금메달 포상금까지 받아 돈방석에 앉는 일도 조만간 벌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막을테면 막아봐" 24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흥국생명 윌킨스가 도로공사의 블로킹을 뚫고 스파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이정재 '최우수 선수'

대한역도연맹 선정

이정재(25·광주은행)선수가 2006 대한역도연맹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남자선수

수에 선정됐다.

이정재는 2006년 제15회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6월에는 한·중·일 국제초청역도선수권대회 77kg급(용상)에서 종전 198kg이었던

한국신기록을 199kg으로 바꾸는 등 국위선양 및 역도 경기력 향상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고광구(37) (주)광주은행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 여자선수에는 장미란(전 원주시청)이 최우수단체상에는 충북체고, 신인선수상에는 김신배(한구체대)가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쇼트트랙 있음에"... 한국 3위 도약



동계U대회

남녀 1,500m서 금2·은2·동1개 추가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효자종목' 쇼트트랙의 선전에 힘입어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메달 순위에서 종합 3위로 뛰어 올랐다.

한국은 지난 23일(한국시간) 오후부터 시작된 쇼트트랙 첫날 남녀 1,500m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휩쓸면서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다.

남자부에서는 성시백(연세대)과 조남규

(단국대), 이승훈(한국체대 입학 예정·신목고)이 결승에서 나란히 1~3위를 차지해 메달을 독차지했고, 여자부에서도 김혜경(상신여대)과 조해리(고려대)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내는 역주를 펼쳤다.

이번 동계유니버시아드에 나선 쇼트트랙 대표팀은 1진들이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 준비로 빠진 가운데 2진급 선수들로 구성됐지만 기량 면에서는 '좋은 한 장' 차이를 성적으로 보여줬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인스브루크 대회에서

전종목 금메달을 석권했던 한국 쇼트트랙은 2년 만에 또 한번 금메달 '싸움'을 향해 순조롭게 첫 걸음을 내디뎠다.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한 덕에 한국은 24일 오전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를 따내면서 러시아(금 6, 은 8, 동 7)와 이탈리아(금 6, 은 1, 동 1)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한편 이날 새벽 펼쳐진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주월 경기에서는 이진우, 여성영, 김명석(이상 한국체대), 모태범(한국체대 입학예정·잠실고)이 나섰다. 1차 예선에서 6위를 차지한 뒤 B파이널로 밀려 3분59초22의 기록으로 종합 6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등 해외파 총출동



베어벡호 내달 7일 그리스와 평가전

베어벡호가 2007년 새해 첫 평가전을 출격 가능한 해외파와 총동원된 최정예 멤버로 치른다.

24일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7일 영국 런던 크레이븐 커티지 스타디움에서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4) 우승팀 그리스와 친선경기를 치르는 축구대표팀 20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명단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삼총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설기현(레딩), 이영표(토트넘)를 비롯해 러시아 리그에서 뛰는 김동진과 이호(이상 제니트), J-

리거 조재진(시미즈), 김정우(나고야)까지 이름을 올렸다. 국내파도 기존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됐던 정상급 선수로 구성됐다.

공격수는 정조국(서울)과 이천수(울산), 염기훈(전북)이 뽑혔고, 미드필더에서는 김두현과 김상식(이상 성남), 김남일(수원)이 베어벡호에 몸을 실었다. 송종국(수원)과 오범석(포항), 김진규(전남) 등 수비수도 기존 선수로 구성됐고, 골키퍼도 김영광(울산)과 김용대(성남)가 다시 중용됐다.

베어벡 감독이 이처럼 최강의 전력을 꾸린 것은 오는 7월 200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해 해외파를 점검하고 조직력을 가다듬을 기회를 현재로서 그리스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 25일(목)
 - ▲호주오픈 테니스 여자결승(11:30·MBC ESPN)
 - ▲제34회 MBC 권투 신인왕전(13:50·MBC)
 - ▲호주오픈 테니스 남자결승(17:30·MBC ESPN)
 - ▲V-리그(한국전력-상무)(18:40·KBSN SPORTS)
 - ▲프로농구(동부-KTF)(18:50·SBS스포츠, Xports)
- 26일(금)
 - ▲PGA투어 뷰의 인비테이셔널 1R(05:00·SBS스포츠)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전남고시학원

TEL 222-5105

중개사 특강

전남고시학원

TEL 222-5105

전통 침·뜸 공개 강좌

중국문화원

TEL 236-3516

원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주)태양상사

TEL 10821282-0101

유해조수 구제 및 배지 잠는 경기총 출현

계림총포무역

TEL 222-9077 229-7288